

뒷간과 화장실 미학



글이 상 정 무림고역대표/한화협 이사

동양의 정전법

농업용 비료에는 분뇨 이외에도 풀을 썩힌 초비(草肥), 나무나 풀을 태워 재로 만든 회비(灰肥), 풀을 베어다 덮는 녹비(綠肥), 분뇨를 짚 또는 풀과 모래를 섞어 발효시킨 퇴비(堆肥) 등이 있다. 옛날에는 인구에 비해 유향 농경지가 많았으므로 동양에서는 소위 정전법(井田法)이라는 것이 실시되었다. 정전법이란 밭을(田)자 모양으로 4등분하거나(井)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해마다 그 구역을 차례로 돌아가며 곡식을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전법(田法)이라면 4년에 한 번씩, 정법(井法)이라면 9년에 한 번씩 윤작하는 셈이 된다. 이는 윤작으로 인한 지력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었다.

사람이나 가축의 분(糞)을 농경에 이용한 것은 벌써 그 이전의 일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정전법은 사람이나 가축의 분을 밭에 뿌리는 이전의 방법이 윤작으로 인한 지력의 감소를 막는데 만족할 만한 방법이 되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의 은나라 시대부터 실시되어 온 것으로 여겨지는 정전법은 그 후 기자조선(箕子朝鮮)을 통해 한반도에 전해졌다고 하며, 한국의 경주(慶州)에는 정전의 유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을 부인하는 사학자들은 이를 진한(辰韓)의 유제(遺制)라고 하여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분석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자에 의해 알 수 있는 과거의 사실들은 시간적으로 보아 인류 역사 전체에 있어 2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인류사 속에서 문자가 발명된 이후 줄곧 쓰여진 수많은 사서(史書)들 중 그 어떤 것도 인류의 상고사(上古史)를 연구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태고(太古)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의 유일한 단서는 화석(化石)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지구의 주인은 공룡(恐龍)이라는 거대한 파충류의 무리였으며, 지각의 변화는 어려웠고, 인류가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왔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상식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자연발생적 타임캡슐이라고 불리우는 화석(化石)의 공로였다. 지구상의 모든 과거는 화석이 될 수 있다. 화석이 되지 않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벌레와 꽃, 새와 짐승,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화석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자취를 남긴다.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서 매머드의 화석이 나오고 호박(琥珀)속에서 공룡의 피를 빨아먹던 모기의 화석이 나오는 것처럼 어디인가 인간의 화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의 화석을 발굴해 낸다는 것, 그것은 오랫동안 여러 고고학자들의 숙원(宿願)이었다. 그러나 어디서고 인간의 화석이란 좀 체로 발견되지 않았다.

적어도 1961년까지는 그랬다.



▲구입문의 협의회 사무국
(☎ 031-226-7001)

지난 몇 년간 화장실문화개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의 화장실문화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고속도로 곳곳의 휴게소 화장실과 전국 여러 곳의 화장실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나 화장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화장실에 대한 역사와 참고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한다.

본 내용은 '호모토일렛(Homo Toilet)' 에서 발췌하여 기술한다.(편집자)

- 다음호에 계속

화석

1961년 7월 이스라엘의 아무르 동굴에서 20만년에서 10만년 전쯤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이 도쿄(東京)대학의 고조사단에 의해 발굴되었다.

이때까지 고대 인류의 완전한 뼈 화석이 발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고고학자들은 흥분했고 이로써 선사시대 인류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은 고대 인류의 생물학·해부학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려주었지만 인간의 문화 - 이를테면 무엇을 먹었으며, 대개의 건강상태는 어땠고, 어느 정도의 문명생활을 하였는가를 연구하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오히려 인류의 조상이 배설한 지저분한 분(糞)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화석으로 변한 이른바 분석(糞石, coprolite)이라는 것이 고대 인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분석의 발견

분석이라나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분(糞)의 화석(化石)을 말한다. 학자들이 분석에 주목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로 이것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새로운 것에 속한다.

분석 연구의 시초는 1875년 미국의 와이먼

(Wymann)이 플로리다주(州)의 세인트 존스 강의 담수계 패총(貝塚)에서 많은 어골(魚骨)이 포함된 분석을 발견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와이먼은 이 화석을 깨뜨려 많은 어골을 찾아냈고 그것에 대해 기록했다.

그 후 1896년에 하쉬벨거(J.W. Harshberger)가 선사시대의 민족적 식물 사에 원점을 탐구하면서 분석을 다루었고, 1910년에 영(B.H. Young)이라는 사람은 켄터키 주의 어느 동굴에서 식물의 종자(種子)가 포함된 분석을 발견하였다.

영은 분석 속에 포함된 종자들을 채취하여 감정하였지만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선사시대에 살았던 어떤 동물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물의 화석보다 사람의 화석이 훨씬 늦게 발견된 것처럼 분석 역시 사람의 것은 그 모습을 좀처럼 나타내지 않았다.

1961년 미국 시카고 대학의 인류학자 브레이도우트 박사, 하버드 대학의 동물학자 리이트 박사 등이 이란의 더크로스 산맥 지대의 아시아브라고 하는 1만년 전의 흙무더기 속에서 분화석(糞化石) - 코프로라이트(coprolite)를 발견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의 분석임이 확실해 보였고 이 화석의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은 그 무렵의 인간들이 무엇을 먹고 지냈는지 알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